“‘팝콘영화’ 그냥 재밌게 즐겨주세요”

영화 ‘검사외전’ 주연 황정민
‘아수라’ ‘군함도’ 등 연이어 출연

영화 ‘검사외전’의 주인공 역을 맡은 황정민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를 ‘팝콘영화’라고 정의내렸다. 팝콘 먹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게 볼만한 영화라는 뜻이다.

황정민은 최근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큰 의미 없이 볼 수 있는 것도 영화가 주는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외전’은 살인 누명을 쓴 다혈질 검사가 교도소에서 만난 전과 9범의 ‘꽃미남’ 사기꾼과 함께 누명을 벗기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황정민은 검사 변재욱 역으로 분해 사기꾼 역으로 나오는 강동원과 처음으로 한 스크린에 섰다.

그는 강동원 캐스팅 소식에 박수를 쳤다고 했다. 강동원에 대해서는 “기본 성향이 되게 수더분하다. 얼굴이 잘생긴 데다가 성격이 수더분하고 약간 촌놈 기질도 있다”고 평했다.

전작인 ‘히말라야’에서 ‘휴먼 원정대’뿐 아니라 영화 흥행도 이끌어야 했지만 이번 영화는 강동원과 ‘투톱’으로 나온다.

부담이 덜 할 만한데 “부담감은 늘 있다”고 한다. “내가 해야할 몫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연이 중요하다. 순간순간 나오는 조연이 잘할 때 주인공이 빛이 난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동기 검사로 나오는 박성웅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마음 씀씀이가 좋았다. 다른 영화에서 나보고 작은 역할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재지 않을까”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황정민은 2014년 ‘국제시장’, 지난해 ‘베테랑’, ‘히말라야’, 올해 ‘검사외전’ 등으로 쉼 없이 연기활동을 벌이고 있다. 뮤지컬 ‘오케피’를 연출하고 출연하기도 한다.

그는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일하는 것이 재미있다”면서도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겠죠”라고 말했다.

황정민은 배우 이외의 일에 도전하고 싶은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배우로만 살기는 아깝지 않나.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자신이 출연한 다른 영화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았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을 맡고 그와 정우성, 주지훈, 곽도원, 정만식이 출연하는 ‘아수라’가 올해 개봉할 예정이다.

그는 “그렇게 끈적끈적한 영화는 처음이다. 피의 향연을 벌인다. 오랜만에 재미있게 찍었다”고 전했다. 같이 출연한 정우성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 다시 봤다.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고 말했다.

황정민은 류승완 감독의 차기작 ‘군함도’에도 나온다. 영화는 일제강점기 일본 군함도(하시마·군함 모양을 닮아 군함도라고 불림)에 강제 징용돼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 400여명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는 “배우로서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하고 싶다. 직접 현장에 가보고 당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화 ‘검사외전’의 흥행에 적지 않은 기대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대진운이 좋다. 구정 연휴가 긴데, 그때 해외로만 안 나가신다면…”이라고 웃었다.

배우 유연석 어린이 멘토된다
박보영·타이거JK 이어 ‘위키드’ 합류

트렌디한 동요를 만드는 엠넷 ‘위키드’(WE KID)에 배우 유연석도 합류한다고 엠넷이 1일 밝혔다.

유연석은 앞서 출연 사실을 밝힌 배우 박보영, 래퍼 타이거JK와 함께 3인의 어린이 멘토로 활약하게 된다. 박보영과는 영화 ‘늑대소년’ 이후 4년만에 재회하게 됐다.

엠넷은 “유연석은 과거 연극을 통한 아동 심리치료를 배울 정도로 어린이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유연석이 보여줄 어린이와의 환상 호흡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위키드’는 ‘우리 모두 아이처럼 노래하라’(WE sing like a KID)의 준말로 어른과 어린이 모두 사랑하는 트렌디한 동요를 만드는 ‘동심저격 뮤직쇼’다.

오는 18일 오후 9시40분 엠넷과 tvN에서 동시에 첫 방송된다.

육아 드라마 ‘마이 리틀 베이비’
오지호·이수경 남녀주인공 캐스팅

MBC가 ‘육아 예능’에 이어 내놓는 ‘육아 드라마’에 오지호〈왼쪽〉와 이수경이 주인공으로 나선다.

MBC는 본격 육아드라마 ‘마이 리틀 베이비’에 오지호와 이수경이 조카를 키우게 된 강력계 형사 차지한과 ‘싱글맘’ 한예슬 역을 각각 맡았다고 1일 밝혔다.

오지호는 2013년 ‘직장의 신’ 이후 3년만에 지상파에 복귀하게 됐다.

신예 김민재가 정한과 함께 살며 카페를 운영 중인 ‘꽃미남’ 윤민 역을, 걸그룹 ‘포미닛’의 남지현이 육감적인 베이비요가 강사 한소윤을 연기한다. 드라마, 뮤지컬, 영화를 가리지 않고 활약 중인 정수영은 차정한과 앙숙인 육아 고수 조지영 역을 맡았다.

제작진은 “육아의 터널을 지나온 세대에게는 추억을,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에게는 위로를, 결혼을 앞둔 미래의 부모에게는 ‘깨알’ 정보를, ‘여포자’(여자이기 포기한 자)가 된 육아맘들에게는 달달한 로맨스를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 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재)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네트워크 특선 원전도시 55 안녕 우리말	00 1대100(재)	00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재)	10 닥터 365(재)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12	40 채널A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45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시간을 달리는 TV(재)	20 문화사색(재)	
2		00 우수학교 스포츠 클럽 초청 대회 〈배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폴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55 튼튼생활체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 똑!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30 고고 다이노
5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특집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갈데까지 가보자(재)	25 우리집 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 킹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 드라마 〈무림학교〉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충격 실화극 싸인(재)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걸작다큐 〈심해의 세계 바닷속 2,000m〉	10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5 불타는 청춘
12	30 개밥주는남자(재)	35 독립영화관 〈무산일기〉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건강한아침
05:40 성공 인생후반전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레이디 버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09:40 토크쇼 부모 〈이슈 N 맘〉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전진주의 친숙한 음식〉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재) 〈호주 동부 3,000km 낭만유랑〉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3:05 지식채널e
13:10 프레임 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4:00 초등 1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20 초등 5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40 초등 3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코코코 다코(재)
16:45 딩동댕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3
18:45 신통방통 공룡 슈퍼
18:55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흑산도 겨울 홍어잡이〉
20:40 다큐 오늘 〈한 그릇 후루룩〉
20:50 세계테마기행 〈물과 불의 땅을 찾아서, 순다열도〉
21:30 한국기행 〈기찻길 따라 겨울로〉
21:50 EBS 다큐프라임 〈행복한 건축〉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23:35 프레임 人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일(음 12월 24일 甲寅)

子 **48년생** 솜씨를 발휘한다면 크게 호평을 받을 수 있다. **60년생** 상대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72년생**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느니라. **84년생** 안전하지 못한 양태이니 방심하지 말고 즉시 조처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1, 51

丑 **49년생** 흉과 복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61년생** 활용 가치를 잘 따져 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73년생** 거시적인 안목으로써 내다 볼 줄 알아야겠다. **85년생** 치밀한 설계 못지않게 알찬 실행도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42, 23

寅 **50년생** 불합리함을 청산하면 회복할 수 있다. **62년생** 강력한 기득권의 횡포 앞에서 휘둘릴 수 있다. **74년생** 일시적인 현상으로 속단한다면 일관성을 해칠 수도 있다. **86년생** 현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2, 04

卯 **51년생** 결정적인 신호는 느낌으로써 올 것이다. **63년생**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래의 전망을 밝게 할 것임은 분명하다. **75년생** 깜박 잊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 볼 일이다. **87년생** 능률이 오르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84, 52

辰 **40년생**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무리한다면 실책 할 수다. **52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패착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64년생** 기탄없이 행하자. **76년생** 의지가 확고하다면 기필코 성사된다. **88년생** 진중한 행동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59, 35

巳 **41년생** 미동도 하지 말아야겠다. **53년생** 내부적인 단속부터 잘 해두자. **65년생**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마당이다. **77년생** 먼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으니 눈 크게 뜨고 살펴보라. **89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 행운의 숫자 : 36, 77

午 **42년생**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진취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다. **54년생** 지극히 알찬 결과의 산출이 예상된다. **66년생**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법이다. **78년생** 고행의 길이긴 하지만 장래를 위한 보람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74, 17

未 **43년생** 판이한 사정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5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67년생** 빈틈없이 준비한 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하는 판국이다. **79년생**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자. 행운의 숫자 : 78, 29

申 **44년생** 바탕이 좋다면 절반의 성공은 보장받은 셈이다. **56년생**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68년생** 뒤늦게 후회할 일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옳다. **80년생**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10

酉 **45년생** 선택을 잘해놔야 적용하는데 용이하다. **57년생** 멀리서부터 길성이 떠오르니 만사여의로다. **69년생** 취약점을 보완해두지 않으면 연쇄적인 봉패를 면할 길이 없다. **81년생** 불안 요소가 계속 되면서 회의를 느끼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0, 68

戌 **46년생**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 **58년생** 묵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70년생** 노력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리라. **82년생** 의무를 다 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50, 86

亥 **47년생**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가능성을 동반하게 된다. **59년생** 규모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 옳다. **71년생** 행동을 같이 하지만 마음은 콩 밭에 가 있다. **83년생** 저변을 확보하는 기회를 맞이하리라. 행운의 숫자 : 90, 6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